
2021년 제16호 방송심의보고서

2021. 4. 16. ~ 4. 22.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0. 4. 16.	시청률	0.107

【총 평】

코로나19 예방백신, 공동육아, 교통사각지대 고발, 먼지 차별, 대학 성적평가, 4.11 민주항쟁, 다문화 리포트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내용으로 구성해 흡인력을 높였다. '고령자 접종 도와요'는 백신접종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와 함께 백신 접종과정과 접종자의 반응 등을 상세히 보도하고 의용소방대원들의 자원봉사 모범 사례를 소개했다. '4.11민주항쟁 김주열 열사 기린다'는 김주열 열사를 재조명하는 추모 열기와 함께 화합의 상징으로 승화시키려는 의미를 강조한 점이 돋보였다.

【구성 및 내용】

- 고령자 백신 접종, 자원봉사자 힘 보탠다.
인천시 서구의 노인들이 의용소방대원의 카트를 타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로 이동하여 접종을 받았다. 의용소방대는 이렇듯 노약자들의 접종을 도와주고 있으며 보호자가 없는 고령자에게는 접종부터 귀가까지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 조합형 공동 돌봄...아이도 부모도 만족
조합형 어린이집의 우수한 교육 환경과 교육 프로그램 등을 안내했는데, 공동체 육아의 장점을 알려 사회적 대안으로서도 가치 있었다. 다함께 돌봄센터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놀이, 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데 부모들이 공동투자한 곳이다.
- 아파트·캠퍼스 안 '도로 외 구역' 교통사고 위험
아파트 내 도로 등 도로 외 구역에서 전체 교통사고의 15%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많아 운전엔 유의해야 한다. 도로 외 구역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 교통사각지대의 문제점을 현장 고발해 환경감시기능 역할을 했다.
- '라운학교' 전공 살리고 다문화 가정도 돕고
대학의 다문화학과 학생들이 다문화 가정을 방문하여 어린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낸다. 코로나19로 밖에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운 시기에 다문화 가정의 사회 적응을 돕고 배려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며, 이를 알리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 무심코 던진 한마디 '먼지차별' 일상 속 만연
일상 속 나이, 성별 등 작지만 차별적인 언행을 가리켜 먼지차별이라고 부른다. 이런 먼지차별로 인한 불쾌한 경험은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성별에 따른 먼지차별이 심하다. 좋은 의도로 한 발언이 먼지차별이 되는 경우도 있다.
- 4.11 민주항쟁 '김주열 열사' 기린다.
창원에서 4.19 혁명의 도화선인 김주열 열사를 기리고 4.11 민주항쟁을 재조명하기 위해 김주열 열사의 시신 인양지 인근에 추모의 벽, 추모 광장을 조성했다. 열사의 모교에도 추모공원이 세워졌고, 2024년까지 민주주의 전당 건립이 예정되어 있다.

프로그램	톡톡 사이다경제		
방송일자	2020. 4. 16.	시청률	0.105

【총 평】

‘경제&이슈’의 ‘3월 수출액 500억 달러 돌파, 주력 산업 대응 방안’은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코로나19 백신 확보 문제, 국내외 확진 환자 증가 추세, 그리고 코로나19 와중에도 무역 수지 증가와 수출 분야 증가세를 살펴보았다. 또, 정보통신 분야의 반도체 및 전기차 그리고 조선 등 주력 산업 현황과 대응 전략을 소개했다. 특히, 11개월 동안 수출 흑자를 기록하게 된 배경과 미·중 간의 무역 다툼 속에서도 국내 수출이 돋보인 이유 등을 점검하여 시청자들에게 국내외 산업 흐름 파악에 도움을 주었다. ‘알뜰신잡’은 ‘함께 지키는 반려견 에티켓’을 자세히 알려주어 천만이 넘는 반려인들의 인식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구성 및 내용】

코로나19 상황에 이어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살펴봤다. 코로나19 상황이 몰고 온 비대면 환경의 증가에 따라 폭발적인 수요 증가의 반도체와 친환경차가 주도한 자동차, 13년만에 전세계 수주량의 52%를 차지한 조선까지 코로나 이후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볼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속에서 올해 1분기 수출 500억 달러 돌파에 대한 주력 산업을 살펴보고 차후 대응 방안을 위한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 내용을 전하였다. 1분기 수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분야는 정보통신기술(ICT)산업과 반도체 산업의 호황 및 친환경 자동차, 조선업 등의 산업에서 수출 및 호황을 보이고 있음을 전달하고 각각에 세부적인 내용을 분석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업무, 회의, 교육 등을 진행하다보니 ICT수출이 증가 추세이고, ICT 품목인 반도체, 스마트 폰, 디스플레이 호황과 함께 ICT 정보통신수출시대를 이루며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반도체 분야의 수출 증가 원인 및 미중 반도체 자국 생산 중심 방향 전환에 따른 우리 기업의 러브콜 소식을 전했는데, 미중 반도체 경쟁을 고려한 도전과 기회의 측면을 고려해 잘 대응해야 한다. 미국이 반도체 생산 전량 자국 생산 목표를 갖고 삼성전자에 반도체 공장 추가 증설을 요청했고, 중국 화웨이도 반도체 협력 의사를 표명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산업의 고부가가치가 생성되고 다양화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및 비메모리 반도체 등의 동반 수출이 늘어났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친환경 자동차를 비롯해 한국 자동차 산업은 물론 글로벌 자동차 산업까지 필요한 반도체 관련한 한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앞으로도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분야로서 기대 분야 산업임을 설명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차의 보급 확대 및 기후협약에 따른 친환경차로 전환되는 시대를 맞이했다.

프로그램	사운드멘터리 풍경소리		
방송일자	2020. 4. 17.	시청률	0.000

【총 평】

‘천년을 이어온 억겁의 소리’편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자연과 불심, 깨우침을 성찰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경남 남해 천년고찰 망운사를 무대로 한 자연의 소리와 주지스님의 일상을 그려내 깊은 울림을 준 기획이 뛰어났다. 바다 주변 사찰의 자연소리가 잘 채음되었고 빼어난 풍경을 화면에 담아 사운드와 비주얼이 조화를 이뤄 사운드멘터리의 진수를 보여 줬다.

특히, 망운사 주지스님의 목소리를 그대로 살리고 자막으로 표기한 점이 깊은 울림과 함께 성찰의 기회를 제공했다. 태동-공양-수행-감사-바람의 마음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살펴본 구성이 메시지 전달력을 높였다. ‘태동’에서는 목탁소리 울림, ‘공양’에서는 부작불식, ‘수행’에서는 깨달음을, ‘감사’에서는 참선과 선화. ‘바람의 마음’에서는 자연의 소리로 마음 정화 등이 제시됐다.

【구성 및 내용】

천년을 이어 온 억겁의 소리, 경남 김해 편은 이른 새벽부터 시작되는 스님의 하루를 따라갔다. 새벽 적막 속에 인물의 움직임과 음성만 전해 집중할 수 있었다. 아침 수양과 울림으로써 하루를 시작해 장소의 특징과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다. 새벽 일찍 일어나 가삼을 입고 목탁소리와 함께 도량석을 행한다. 목탁소리는 태동과도 같다. 태동을 듣고 동적으로 움직여 본인의 뿌리를 깊숙하게 내린다. 예불은 부처님에 대한 예경으로 존중, 존경하는 마음을 통해 스스로 불도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

천연재료로 공양을 하고 남김없이 깨끗하게 비우는 모습은 소박하게 채우고 감사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었다. 3년 된 간장, 그리고 된장 등 천연재료를 이용한 장과 자연이 준 식재료로 만든 공양, 그리고 이를 감사히 먹는 것은 소박한 음식에 감사하는 마음의 수양이다. 일일부작, 일일불식, 하루에 일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 밥을 먹지 말라고 하는 가르침을 받드는 스님의 메시지를 전했으며, 목탁소리나 종소리 등 수행 과정에서 나오는 소리를 사실적으로 담아냈다. 특히, 산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마음가짐에 대한 이해를 도왔고, 밤이 깊어 하루를 마무리하는 모습까지 담아냈다.

영겁의 세월 속에 참된 나를 찾기 위한 수양의 과정을 그림, 산행, 기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통해 수양을 체험하고 마음을 정화할 수 있게 했다. 산 속에서 자연의 한 조각으로 변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 장면은 인상적이었다. 바다 주변 사찰의 청아한 목탁소리, 산에 울려퍼지는 풍경소리, 범종울림, 독경소리, 먹을 가는 소리, 갈매기와 참새소리, 파도소리 등의 자연소리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또, 바닷가 돌섬 오르는 스님, 먹을 갈고 선화에 몰두하는 스님, 바닷가 노을 풍경, 바닷가 구름, 망운사 전경 등 빼어난 풍경을 담았다.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0. 4. 17.	시청률	0.049

【총 평】

‘500,000㎡ 산에 사는 게으른 산꾼과 부지런한 산마늘’편은 경남 거창군 고재면 산기슭에서 산마늘 농사를 짓고 있는 귀산 6년 차 부부의 소박하지만 자연의 감동을 담은 산농사 일기를 담았다. 특히, 초보 농부라 의욕이 앞설 것 같지만 자업의 섭리 앞에서 서두르면 일을 그르친다는 것, 산농사는 사람이 아닌 자연이 키운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은 성숙한 초보 농부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냈다.

산마늘(일명 명이나물)을 생산하는 주인공 부부는 자연에 대한 겸손함과 함께 최소 5년을 키워야 임산물을 생산할 수 있고, 서두르면 안 된다는 귀한 깨달음을 시청자들에게도 전해 주었다. 아름다운 녹색 빛깔로 뒤덮인 산마늘 밭, 4월 봄을 알리는 산세, 앙상한 나뭇가지 속 짙 짙 뽀얀 나무 숲 등 섬세한 영상미가 산꾼이 된 주인공과 잘 어울렸다.

【구성 및 내용】

거창군의 이른 봄 산 풍경을 소개하면서 시작했는데 유난히 눈길을 끄는 파란 밭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왔고 자연스럽게 주인공과 산마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주인공이 재배하는 작물을 미리 공개하기 전에 ‘서두를수록 잘못될 확률이 높은 작물’ 등 힌트를 주는 장면이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산에서 나는 나물류 중 유일하게 마늘 맛과 향이 나는 산마늘은 명이나물이라고 부르는데 춘궁기에 목숨을 이어준다는 의미에서 비롯되었다.

부부의 아침 산책부터 산마늘 수확 장면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졌는데 ‘산마늘’의 뜻을 소개해 주었다. 산마늘은 씨만 뿌리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자라나서 고마움을 느낀다 등 곳곳에서 산마늘의 매력을 돋보이게 했다. 특히 ‘사람들은 그렇게 잘해줘도 배신을 하는데 산마늘은 그렇지 않다’는 말에 공감이 느껴졌다.

과거 IT사업을 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자연에 순응하며 게으르게~ 게으르게를 추구하지만 어찌 보면 인내하는 것은 닮아있다. 귀산 6년 차인 주인공은 말만 게으르다하지 하루 종일 산에서 일 하느라 바쁘다. 산촌 농촌의 일손이 한창 필요한 때에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을 전하였다. 코로나로 인해 해외 노동자들의 유입이 어려운 상황이라 더욱 산촌 농촌 시골의 인력난은 매우 심화된 상태임을 전하였다. 산마늘 잎을 시간 내에 손으로 직접 따야하기 때문에 부지런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주인공은 미소를 잃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산 일이 주는 행복이 크고, 에너지를 얻기 때문이다. 귀산 6년 만에 백년을 내다보고 임업을 해야 함을 깨달은 주인공의 직업관이 잘 묻어난 방송이었다.

산마늘도 그러했고 귀산의 인생 자체가 기다림의 미학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과정 같아 시청자들은 산이 주는 운치를 느낄 수 있었다. “사람이 계획하여도 완성하는 것은 자연이요. 조물주임을, 그리고 인내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은유적으로 보여주어 잔잔한 감흥을 자아냈다.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0. 4. 17.	시청률	0.060

【총 평】

<친절한 이슈 토크>는 최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선언한 “고난의 행군 시작” 발언의 의미와 배경, 북한의 실상, 자력강생 가능성, 한반도 평화의 전망 등을 폭 넓게 분석한 시의성 있는 기획이 돋보였다. 고난의 행군 선언이후 청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이유와 문화 교류조치 막을 수 있는가를 집중 분석했다. 한반도 평화의 길이 가시밭길이지만 그래도 대북 인도주의 정책 등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궁금한 한반도 이슈 텔링>에서는 ‘궁금한 미중 패권 다툼’ 사이에서 우리외교가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묘책과 현명한 외교 전략을 해결책으로 제시해 관심도를 높였다. 우리외교의 묘책으로 ‘연대의 중요성’을, 현명한 외교 전략으로 ‘남북 평화공존’을 제시해 설득력을 높였다.

【구성 및 내용】

‘친톡’은 최근 김정은이 당 ‘세포비서회의’에서 고난의 행군을 선언한 소식을 다뤘는데, 이번에 밝힌 발언의 배경이나 현 상황을 유추해볼 수 있었다.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 3등 서기관이 2월 말 러시아로 귀국하였는데 기차와 버스로 국경까지 이동했다. 북한은 코로나 이후 비상방역조치 및 수출입이 되지 않아 평양에서는 기본적 생필품조차 사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증언이 있었다. 최근 체코 대사관도 전원 철수했다. 한편 북한의 경제상황이 최악은 아니기에 자력강생을 외치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북한 경제전문가들은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부정적 시각을 보여준다.

고난의 행군 선언 연설문의 주요 내용은 10개 과업이다. 더불어 세포비서들의 12가지 기본 품성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유난히 청년단속을 강조했다. 이는 북한의 20~30대 청년들을 다스려야 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장마당세대’를 단속해야 한다는 내용은 북한의 젊은이들의 의식이 변화하는 방향을 짐작할 수 있는 좋은 정보였다. 북한이 지금과 같은 폐쇄 정책으로 자력강생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북한의 선택이 한반도 평화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해 의미 있었다.

‘이슈 텔링’은 미중 갈등이 본격화하는 단계에서 우리 외교의 방향설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탈냉전의 바다에 떠있는 냉전의 섬이다’이라고 비유했는데 공감이가 가는 표현이었다. 과거 냉전 시대의 구도가 형성되고 북한의 무력 도발까지 더해져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현 상황을 설명해 이해를 도왔다. 특히, 미중은 서로 직접 충돌은 하지 않을 것이며, 주변국들을 활용해 간접적으로 충돌할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해야함을 강조했다. 또한,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고 영리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해 자부심을 갖게 했으며, 우리나라의 외교성과를 점수로 평가하고 앞으로의 외교 전략과 방향에 대해 모색했다.

프로그램	영상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		
방송일자	2020. 4. 17.	시청률	0.046

【총 평】

1979년 10월 16일 부산에서 시작된 유신 철폐 시위가 마산까지 확대된 사건인 '민주화의 씨앗-부마민주항쟁'편을 방송하였다.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권의 유신 헌법 문제와 노동자 문제 등 권위주의와 유신체제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1979년 10월, 시민과 대학생들이 주도하였던 그 뜨거웠던 민주화 현장을 낱알이 밝혀냈다.

1979년 10월 17일 “오후 6시 남포동 부영극장 앞에 집결한다.”는 한마디를 시작으로 부마민주항쟁은 학생 453명과 시민 1,080명이 연행되며, 민주화를 촉발시킨 사건으로 당시 부산과 마산 시내 곳곳에서 펼쳐진 독재타도와 유신 철폐는 대학생과 시민의 주도하에 이뤄진 민주화 운동이었다.

【구성 및 내용】

10.26의 도화선이 됐던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 지역의 부산대, 동아대, 경남대 학생들이 중심으로 펼쳐진 유신반대, 독제철폐를 외친 학생과 시민들의 항쟁이었다. 부마민주항쟁의 순간들을 겪은 당사자들의 증언으로 재구성해 현대사의 중요한 한 장면을 볼 수 있었다. 부마민주항쟁이 그 이전의 민주화 항쟁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주고, 부마민주항쟁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겨주었다. 2019년 10월16일 정부는 부마민주항쟁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40여년이 지난 부마민주항쟁에 대해 재평가하고 의미를 재조명하여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여 기념식을 거행했다.

기나긴 박정희 대통령의 유산독재체제 언급부터 시작해서 10월 16일 부산에서 시작해 마산까지 확대된 부마항쟁의 전체적인 가닥을 먼저 잡고 시작했다. 최초의 부산대 시위부터 마산 경남대에서 시작해 부산 마산 전역으로 확대된 시위의 경위가 시간별로 설명되어 이해를 도왔다. 특히 유신체제에 반발을 품던 국민들의 심경을 고무풍선에 비유하여 마침내 폭발하게 되었다는 설명이 아주 인상적이었다. 또한, 폭력적으로 변화된 경찰의 공격과 계엄군이 투입되어 보여준 참혹한 공격성을 있는 그대로 언급해서 당시의 고통스러운 실상을 그대로 느끼게 해주었다. 또, 피해자들이 고문을 당하면서 당시 정부가 간첩에 의한 조직적인 각본이라고 언급했다는 내용이 무척 섬뜩했다.

마산의 경우 3.15탑이라는 특정 건물이 언급되면서 집권여당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27세의 일반 직장인이 시청 앞 시위대에 휩쓸려 계엄군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증언도 함께 구구절절이 설명하지 않아도 당시의 진압이 얼마나 무모하고 과격한 진압이었는지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었다. 퇴근길에 시위대에 휩쓸려 경찰서로 연행되어 고문과 구타에 시달린 이야기, 여성으로서 입에 담지 못할 치욕을 겪은 이야기, 부마항쟁의 첫 사망자로 공식 인정된 사망자의 사연까지 차례로 소개가 되어 엄연히 무고한 희생이 많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프로그램	정책은 머니? 혜택은 뭐니?		
방송일자	2020. 4. 18.	시청률	0.070

【총 평】

‘반려가구를 위한 혜택’과 ‘농촌 미리 살아보기 지원’, ‘장애인 지원정책’이 상세히 소개돼 정책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특히 2021년 들어 달라진 새로운 정책지원 내용을 중점적으로 안내해 주목도를 높였다.

최근 급증하는 반려동물 가구의 니즈를 잘 살렸으며, 최근 늘어나는 귀촌 귀농 희망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새롭게 달라진 장애인 지원 정책을 설명하면서 후천적인 장애 발생이 90%임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강조한 마무리 메시지가 공감도를 높였다.

【구성 및 내용】

‘농촌 미리 살아보기 정책’은 슬로우 라이프를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 유용한 정보였고 특히 취업난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에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돌봄과 관련한 정책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정리했는데 시의적으로 의미 있었다. 모든 정책이 ‘행복한 삶’이라는 공통점이 있었고, ‘정책=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공식이 만들어져, 공익성이 높았다.

2021년 들어 달라진 새로운 정책지원 내용을 중점적으로 안내한 구성이 주목도를 높였는데, 동물보건사 제도, 청년마을 조성 확대, 장애인 돌봄 확대시행, 장애인친화 산부인과 증설 등을 소개했다.

수용자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소득 지원 방안과 일자리 관련 정보를 중점적으로 제공했는데, 농촌 미리 살아보기 지원액, 장애인 돌봄 추가 지원, 장애인 일자리 확대, 첫 시행되는 동물보건사 자격증 응시 조건 등이었다.

맹견으로 인한 사고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는 정보는 관심이 갔고 보험료가 축소되었다는 사실도 아울러 전해 가입을 유도한 점도 좋았다. 반려동물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취지로 오는 8월28일부터 도입되는 ‘동물보건사’ 제도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되었을 것이고, 제도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서 설명해 제도의 효과를 짐작하게 한 점도 좋았다. 또한, 양질의 동물 간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정책이어서 반려동물 인구의 관심과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보였다.

‘농촌 미리 살아보기’ 정책은 연령대별로 차별화된 지원책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소개한 점이 좋았고 특히 ‘청년마을조성’은 이주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는 것으로 사회의 분위기와 관심을 반영해 유익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올해부터 새롭게 달라진 장애인 지원정책을 소개했는데 특히 ‘돌봄 지원’과 ‘장애인등록’과 관련한 제도적 개선을 설명하면서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는 점을 강조한 점이 특별하게 느껴졌다.

프로그램	한국판 뉴딜 나의 뉴딜		
방송일자	2020. 4. 18.	시청률	0.002

【총 평】

‘코로나시대 교육혁신-그린 스마트 스쿨’편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계 그린 스마트는 무엇인지, 공간 활용으로 교실과 교육을 변화시키는 데 일조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의 방향성과 비전을 살펴보았다. 낯설지만 새로운 학교로 비춰질 그린 스마트 스쿨의 실체를 미국 필라델피아 모델이나 한국 학교 모델 등을 보여주어 미래학교의 필요성과 보완점을 소개해 정부의 그린스마트 프로젝트 추진이 절실함을 느끼게 했다.

【구성 및 내용】

미래학교 프로젝트의 실체를 알아보면서 학교의 공간과 교실의 스마트, 학교생활 속 생태 환경 실천, 지역 사회와 연대한 학교 복합화 등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추진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아 정부의 정책 방향을 명확히 밝히는데 일조하였다.

스마트 그린 스쿨의 개념에 대한 설명을 4가지 구성요소를 제시하였다. 공간 혁신을 비롯해 스마트 교실, 그린 학교, 학교 복합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임을 설명하였다. 그중에서 공간 혁신을 통해 현재 학교 공간을 전면적으로 바꾸어 빔 프로젝터 설치와 태블릿 PC로 수업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 중심 사업임을 알려하였다.

스마트 그린 스쿨의 미래학교의 완성을 위해 해외 학교들의 사례들을 충분히 조사하여 연구하고 교육정책에 반영하고 있었다. 미국 필라델피아 스마트 그린 학교의 교실 환경을 제시하여 현재 구상하고 있는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그린 학교가 어떠한 것인지를 잠시 느낄 수 있게 전하였다.

공간 혁신 사업이 그린스마트 스쿨의 왜 중심이었는지에 대한 이해할 수 있었는데, 공간 혁신을 통해 교사와 학생들의 수업 방식이 참여와 자율에 의해 진행될 수 있게 변화되었다. 전주시에 한 초등학교의 공간 혁신을 소개했다. 리모델링 전후를 비교해서 이해를 도왔으며 특히, 그룹 활동을 위해 학생들의 책상이 그룹으로 붙여지고 떨어지게 하기 위해 책상모양을 육각형 모양으로 만든 모습이 사소하지만 사소하지 않은 공간의 힘을 알려주었다. 서울 강서구의 고등학교는 그린 스마트 스쿨 학교로 유리지붕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학교 전체의 유리창이 태양광 판으로 이루어져 학교 자체에서 에너지를 공급을 받고 있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연료비를 절감하고 있었다.

이 밖에 스마트 교실 조성을 위해 학교 각 학급에 와이파이가 들어오고 태블릿 PC가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되어 교사와 함께 태블릿PC로 수업을 하면서 종이가 없어지는 학교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설명했다. 또, 공간 혁신화와 스마트 교실 구비를 통해 학생들을 수업하고, 시설을 활용해 시너지를 내야 하는 교사들의 역량 강화도 시급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우리의 IT기술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학교의 교실도 모두 디지털 기반의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함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었다.